

San Francisco, California.

November 25, 1918.

To His Excellenc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Your Excellency:

The undersigned have been authorized by the Executive Council of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which represents 1,500,000 Koreans residing in America, Hawaii, Mexico, China and Russia, to present to your Excellency the following memorial:-

We, the Koreans of America, Hawaii, Mexico, China and Russia, voicing the sentiment of 15,000,000 of our countrymen, lay before your Excellency the following facts:

Japan took Korea, after the Russo-Japanese war, in violation of her treaty obligations to Korea. As your Excellency undoubtedly know, Korea formed an alliance with Japan at the beginning of the Russo-Japanese war to aid the latter power to win the struggle. This was done in return for a definite guarantee of political independence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Korea by Japan. Taking Korea as a prize of the war was an act of betrayal on the part of Japan. Neither the people, nor the Emperor, nor the responsible prime minister ever sanctioned the protectorate and subsequent annexation of their country. It was perpetrated at the point of the sword as sheer might over right.

After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the country

has been mis-ruled from the standpoint of the Korean people. Natural resources are being developed, but they are exploited for the benefit of Japanese, not of Koreans. All the rights to develop the resources of the country are given to the Japanese, and Korean enterprise, even of the humblest sort, is insidiously hampered by them. The Korean merchant cannot compete with his Japanese competitor because of the preferential treatment shown by the government. Hundreds of thousands of Japanese who are unable to make a living in Japan proper are brought over to Korea and are provided for at the expense of the Koreans. Thus the Korean people are reduced to industrial serfdom, and are forced to submit to Japanese through economic pressure.

From the standpoint of culture and enlightenment,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brought a still worse calamity to our people. The government made a systematic collection of all works of Korean history and literature in public archives and private homes and burned them. All Korean literature -- from local newspapers to scientific journals -- has been completely stamped out. The Japanese language has been made the official tongue not only in official documents but in schools as well. Educational regulations forbid the teaching of Christianity, but not Shintoism or Buddhism (the national religions of Japan), and of history, geography and the Korean language in all the schools in Korea. Furthermore, they provide that all Korean schools shall be under the supervision of Japanese educators, and the Korean children shall

be taught to salute the Japanese flag and worship the Japanese Emperor's tablet. The government does not allow Korean students to go to Europe or America to finish their education. No public gathering of any kind is allowed among the Koreans, and even religious services are vigilantly watched by Japanese gendarmes. The Christian church in Korea is insidiously discriminated against by the Japanese authorities as was shown by the well known "conspiracy case" in 1912, when over a thousand Korean Christians were put in prison and their activities ended.

The above is a brief mention of only a few of the many flagrant injustices to which the Korean people are forced to submit. We, the common people of Korea, with a passion for self-government and political independence, come to you knowing that your Excellency is an arbiter of justice and a champion of equal rights for all peoples, strong or weak, with the hope that your Excellency may exert your good offices in helping us get our share of justice at this significant time when the particular purposes of individual states are about to give way to the common will of mankind.

We fully appreciate the fact that it will be a delicate task for your Excellency to suggest anything concerning the fate of a people who have not been officially connected with the Allies in the war. But thousands of our countrymen fought as volunteers for the Allied cause on the Russian

front for the first two years of the war. And our people in America proportionately contributed to the cause of democracy both in men and money. The American interests in Korea, industrial, commercial and religious, demand that the United States cannot afford to be indifferent as to what is taking pl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American-Korean treaty, in which the United States pledged friendly aid to Korea, has never been abrogated or rescinded in any manner or form by the people of Korea, nor have the Koreans as a people ever done anything to forfeit the friendship of the United States.

We feel, aside from these moral obligations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to aid the Koreans in their aspirations for self-determination, that the United States cannot afford, for the safety of its own interests, to tolerate the Japanese Prussianism in the Far East while its prototype is crushed in Europe, and that the world cannot be made safe for democracy so long as 15,000,000 liberty-loving Koreans are forced to live under an alien yoke. One of your ideals for just and lasting peace, which the Allied nations have agreed to accept as the guiding principle for settlement of questions at the peace conference, is that "all well-defined national aspirations shall be accorded the utmost satisfaction." This does not

exclude the well-defined national aspirations of the Korean people in particular. We earnestly hope that your Excellency will see to it that the Korean people, too, may recover their birthright to choose the government under which they wish to live.

Respectfully submitted,

Sungman Rhee
Hunghung,
Chan Ho Min

Representatives, Korean National
Association.

샌프란시스코
1918년 11월 25일

미국 대통령 각하

이 청원서에 서명한 사람들은 미국, 하와이, 멕시코,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 살고 있는 백오십만 한인을 대표하는 '대한인국민회' 집행위원회의 지시로 각하에게 다음과 같은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미국, 하와이, 멕시코,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한인들은 천 오백만 동포의 의사를 대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각하앞에 개진하려 합니다.

日露전쟁후 일본은 한국과의 조약의무를 어기고 한국을 병탄하였습니다. 각하께서도 의심할 바 없이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한국은 노일전쟁이 터졌을 때 일본이 싸움에 이길 것을 돕기 위하여 그 나라와 동맹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동맹은 일본이 한국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를 명확하게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을 전리품으로 탈취한 것은 일본의 배신행위입니다. 국민이나 황제 또는 책임진 총리대신 할 것 없이 보호국안과 뒤따른 병합을 인정한 일 없습니다.

이것은 칼날의 위협하에 정당한 자에 대한 철저한 완력행위로 저질러 졌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후 한국민의 눈에서 볼 때 이 나라는 失政하게 놓였습니다. 자원은 개발되었지만 한국민을 위하여 쓰여지지 않고 일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착취되는 형편입니다. 자원을 개발하는 모든 권한은 일본인에게만 주어지고, 한국인의 기업은 가장 유치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음험한 수단으로 방해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의 일본상인들에 대한 특혜대우로 한국상인들은 경쟁할 수 없습니다. 일본 본토에서 먹고 살 수 없는 수천 수만의 일인을 한국에 이주시켜 한국인의 희생위에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한국인을 산업농노로 만들고 있습니다.

文化開化上의 견지에서 본다면 일본의 점령은 한국인들에게 보다 열악한 재난을 몰고 왔습니다. 총독부는 개인이 소유하거나 공공기관에 있는 한국 역사가 문학에 관한 모든 서적을 계획적으로 거두어서 소각하여 버렸습니다. 지방신문에서부터 과학잡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한국 책은 폐기당하였습니다. 일본어는 공문에서만 공식어가 될 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육법규는 기독교를 가르치는 것을 금하고 있으나 일본의 국가에 종교인 神道나 불교는 可하며 한국의 언어, 역사, 지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인 학교는 일본인 교육자의 감독하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동들은 일본국기에 절하며, 일황의 神牌를 숭배할 것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총독부는 교육을 마치기 위하여 학생들이 歐美로 가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은 어떤 종류의 공공집회도 금지되고 있으며, 심지어 종교적인 의식까지 헌병들이 주의깊게 감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천명이 넘는 기독교도가 감옥으로 가고, 저들의 활동이 끝장난 저 유명한 '105인 음모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한국의 기독교회는 일본당국에 의하여 음험하게 차별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오직 한국인이 받은 언어도단의 불공평 처사중의 몇몇을 조금만 지적한 것 뿐입니다.

스스로 다스리고 정치적 독립을 위한 열정을 가진 우리 한국의 보통사람들은 각하께서 강약을 불문하고 모든 민족의 동등권리를 위한 제창자시며 공의를 위한 중재자 이심을 알고 바야흐로 개별국가의 특수목적이 인류의 공통된 소원에 양보되려는 의의깊은 때를 당하여 각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차지할 공정한 몫을 소유할 수 있게 주선하여 주십사고 하는 희망으로 각하앞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합군에 관련되지 않은 국민의 운명에 관하여 각하께서 어떠한 제의를 해주시기는 매우 어렵겠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명의 우리동포들이 연합군의 목적을 위하여 대전의 첫 2년동안 러시아전선에서 의용군으로 싸웠으며, 또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도 민주주의를 위하여 인구에 비례하여 병력과 금전으로 공헌하였습니다. 미국이 가진 한국에 있어서의 공업, 상업, 종교면에 걸친 국가이익을 우호적인 원조를 서약한 한미조약은 한국인에 의하여 어떤 모양이나 형식으로도 폐기, 취소된 일이 없으며, 한국민은 하나의 민족으로 미국과의 우호를 빼앗길 아무죄를 짓지 아니하였습니다.

민족자결을 위한 한국인의 열망은 미국이 도울 도덕적 의무가 있는 외에 미국은 그의 국가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구라파에서, 또 천오백만의 자유를 사랑하는 한국인이 외국의 멍에하에 살고 있는 한, 세계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만국평화회의에서 문제해결의 지침으로 연합국측이 그 수락을 동의하고 있는 공평하고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각하의 이상중의 하나는 “모든 내용이 분명한 국가민족의 열망을 끝까지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에 있어서 각별히 분명한 한인의 민족적 열망을 제외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하께서 한국 민족에게도 자신들이 그 밑에서 살고 싶어하는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타고나서부터 소유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대한인국민회 대표
이승만 · 정헨리 · 만찬호